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경영학 논문에 나타난 수사기법 비교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허 미 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경영학 논문에 나타난 수사기법 비교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허 미 혜

# 인 준 서

허미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두 집단이 영어로 작성한 경영학 연구 논문의 수사학적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100개의 국내외 경영학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영어권 교육기관 소속의 저자와 한국 교육기관 소속 저자의 두 집단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영어권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사기법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wales의 CARS(Create-A-Research-Space) 모델을 참고하였으며 이 모델을 기준으로 100개 논문에서 각 문장이 어떤 이동마디(move)와 단계(step)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얻어진 통계자료는 전체 이동마디 수, 각각의 이동마디 수, 하위단계 등과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 모든 논문이 CARS 모델에서 제공하는 이동마디1-이동마디2-이동마디3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다. 각 논문은 저자의 의도와 논문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수사기법을 보였다. 한편, 두 집단의 논문 모두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가 각각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양 집단 모두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사 패턴이 존재하고 그것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이동마디 비율을 고려하여 숫자가 많은 이동마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영어권 저자 논문과 한국인 저자 논문 각각 이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 집단의 저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이동마디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수사기법이 있으나 같은 언어인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더라도 양 집단의 글쓰기

경향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수사학적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영어권 내에서, 혹은 영어권과 관련된 글쓰기 및 학문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영어권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글쓰기 방식을 알고 이를 참고하는 것이 수사학의 목적인 설득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사기법적 차이를 참고해 영어글쓰기 교사들이 쓰기학습 자료를 구성하거나 수업의 내용을 구성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2. 이론적 배경 .....	2
1.2.1. 수사학의 정의와 활용 .....	2
1.2.2. Swales의 연구논문에 대한 이동마디 분석 .....	5
1.2.3. 선행연구 .....	8
1.3. 연구목적 .....	9
II. 연구방법 .....	11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1
III. 연구결과 .....	15
3.1. 영어권 저자 논문 .....	16
3.1.1. 이동마디의 구조 .....	16
3.1.2.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	22
3.1.3. 이동마디 1 .....	25
3.1.4. 이동마디 2 .....	27
3.1.5. 이동마디 3 .....	29
3.2. 한국인 저자 논문 .....	31
3.2.1. 이동마디 구조 .....	31
3.2.2.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	36
3.2.3. 이동마디 1 .....	39
3.2.4. 이동마디 2 .....	41
3.2.5. 이동마디 3 .....	42
3.3. 비교 .....	44
IV. 결론 .....	50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공용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영어는 국가별 언어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영어 학습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제 2 언어로써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과 EFL 환경 모두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 구사 능력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EFL 환경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고 학습자가 영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ESL 환경과 학습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습자 역시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학습하고는 있지만, 오롯이 국내에서만 영어를 배운 학습자가 원어민과 유사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가 간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문적인 면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제는 국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견해와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영어는 필수적이다. 이미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논문을 썼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세계화하고 있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나열한 글이라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글이므로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는지, 문장의 구조는 어떠한지, 전반적인 글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영어 쓰기 학습이 좀 더 구체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쓰기 학습 역시 원어민과 동일하게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원어민 화자와 비원어민 화자의 영어 사용 양상을 분석해 그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쓰기 학습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화자에게도 원어민과 자신과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유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영어 학술 논문 쓰기의 어렵고 복잡함을 한층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영어 논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글에 나타난 특징들을 제시하고, 동시에 앞으로 영어로 논문을 쓰게 될 한국인 저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2. 이론적 배경

### 1.2.1. 수사학의 정의와 활용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등 언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수사학(rhetoric)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orchers(2006)에 의해 제시된 넓은 의미에서의 수사학은 단어, 이미지, 제스처 등 청중들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 제시되는 모든 매개체를 포함한다. 글쓰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사학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내용을 제시할 때 어떠한 단어, 문장, 표현 등을 이용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를 그 글이 지닌 수사학적 요소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ughes에 의하면(1962) 이러한 수사학은 독자적인 글의 요소를 연구하는

대신에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한다. 또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된 방법론적 측면, 즉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한다. 이 수사학은 글쓰기를 요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여기서 수사학의 목적은 학생들이 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논리를 들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리는 정확한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논리성은 효과적인 수사기법의 활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학의 역할 중에서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설득’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득은 화자나 저자가 어떤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시선에서 청중 혹은 독자들 역시 이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Hughes, 1962). 즉, 청중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논문의 서론 역시 수사학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위 ‘이상적인’ 서론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고 흥미를 북돋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효과적인 서론을 구성하기 위해 각각의 저자들은 서로 다른 수사기법을 사용한다. 즉, 수사학의 연구는 저자의 글 쓰는 방식을 이해함은 물론이고 서론 자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모든 논문은 연구논문(Research Article)의 형태로 다양한 구조와 조직 체계를 갖추는데, 기본적으로는 서론, 연구결과, 결과 및 논의의 구조를 지니며 추가적으로 초록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로 연구되는 구조는 연구논문의 어휘-문법적인 측면, 이를테면 시제선택과 인용 등에 걸치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B. Samraj, 2002). 더불어 논문의 전반적인 수사기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논문의 서론이 활용되고 있다. 서론은 논문의 도

입부이자 논문의 전반적인 틀을 규정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소개 및 그 결과, 논문의 진행 방식, 본 연구의 대략적인 내용 등을 다룬다. 그러므로 서론에 대한 연구는 논문 전체의 흐름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글이 어떠한 장르적 특징을 지니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장르가 글을 쓰는 방식이나 스타일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의 장르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연구논문 또한 학문적 요소와 더불어 글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장르로써 취급할 수 있고, 따라서 연구논문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장르분석(genre analysis)이라고 한다. Swales(1990)에 따르면 장르는 어떠한 형태의 담화이든 이에 해당하는 독특한 범주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용어이며 구어체적 및 문어체적 영어에 관련 없이 적용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Hyland(2003)는 장르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특정 글 집단의 특징은 그 글이 창조되고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장르분석은 1970-1980년대에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의 한 부분으로써 제시되었다. 주로 언어학과 사회학적 방법론에 근거를 둔 담화분석은 형태, 구조, 반복형태 등 모든 담화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van Rees, 2007). 특히 수사학적 이동마디를 이용한 장르분석은 연구논문의 구조적, 수사학적 패턴 분석을 목표로 Swales(1990)에 의해 도입되었다. 여기서 특정 목적의 장르를 분석하는 것, 예를 들어 연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제안서, 특정 목적을 위한 글이나 논문에 대한 장르 분석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써 자리 잡고 있다.

모든 논문은 의사소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담화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는 그 논문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 전체에 해당한다. 즉 그 논

문은 고립되거나 독립적인 문장 측면이 아닌, 하나의 담화로써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수사학적 이동마디(rhetorical move)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이동마디는 글의 부분적인 기능을 구체화하며 단순히 부분적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1.2.2. Swales의 연구논문에 대한 이동마디 분석(move analysis)

Swales(1981)는 이동마디 분석의 담화적 접근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는 Swales를 포함하여 몇몇 학자들에 의해 수정되었다. Swales의 이동마디 분석의 경우, 비원어민 화자가 연구논문을 읽거나 쓸 때, 혹은 비원어민 중에서 영어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다. 이동마디는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순환 형식이 구조화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heldon, 2011). Swales(2004)에 의하면, 서론은 3가지 기본적인 이동마디를 포함한다. 이 세 개의 이동마디를 각각 M1(이동마디 1, move 1), M2(이동마디 2, move 2), M3(이동마디 3, move 3)로 분류한다. Swales는 이를 연구 공간 창조모형(Create-A-Research-Space, CARS)로써 제시했다.

Swales의 CARS 모델을 토대로 김영규, 이은하(2008)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M1은 ‘연구영역 확립하기(establishing a territory)’로 정의된다. M1은 특정 논문의 연구 대상을 드러내고 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M2는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establishing the niche)’로 정의된다. M2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와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M3은 ‘연구의 정당성 점유하기(occupying a niche)’로 정의할 수 있다. M3은 본 논문의 주된 연구에 대해 알리고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나타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이동마디 1의 단계 및 하위단계 정의**

S1	
*1	이전 연구들의 결과 보고
*2	영역 좁히기
*3	현존하는 리서치에 대한 저자의 평가
*4	관련 시기
*5	연구 목적/이전 연구 과정
*6	일반화
*7	용어 및 정의
*8	추가정보 및 지식

**표2. 이동마디 2의 단계 및 하위단계 정의**

S1A	이전 연구와 현 연구와의 차이
S1B	알려진 지식에 대한 추가 정보
S2	타당한 이유

**표3. 이동마디 3의 단계 및 하위단계 정의**

S1	연구에 대한 알림 및 보고
S2a	연구 가설
S3	정의적인 분류
S4	방법 요약
S5	결과 발표
S6	현재 연구의 가치
S7	논문의 구조 정리

이동마디 내에는 일종의 하위개념인 ‘단계(step)가 포함된다. 이동마디 1의 경우에는 단계가 1개이고, 그 밑에 8개의 하위단계가 존재한다. 단계 1은 주제를 일반화하는 부분이며, 8개의 하위단계로써 “\*1: 이전 연구들의 결과 보고, \*2: 영역 좁히기, \*3: 현존하는 리서치에 대한 저자의 평가, \*4: 관련 시기, \*5: 연구 목적/이전 연구 과정, \*6: 일반화, \*7: 용어 및 정의, \*8: 추가 정보 및 지식” 총 8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1)

이동마디 2는 S1A, S1B, S2, 즉 단계 1에 2개의 하위단계가 존재하고, 별개로 단계 2가 존재하는 형태다. S1A는 ‘이전 연구와 현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S1B는 ‘알려진 지식에 대한 추가 정보’를, S2는 ‘타당한 이유’를 나타낸다. 이동마디 3은 논문 내에서 다루는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S1은 연구에 대한 알림 및 보고, S2a는 연구 가설, S3은 정의적인 분류, S4는 방법 요약, S5는 결과 발표, S6은 현재 연구의 가치, S7은 논문의 구조 정리이다. 3개의 기본적인 이동마디의 정의는 ‘연구논문의 서론에 관한 Swales의 수정 모델’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논문에 관한 Swales의 CARS 모델은 1990년 처음 도입된 시점을 시작으로 널리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몇 가지 비판점이 따랐는데, 이를테면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2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 등이다. 그 결과 Swales는 새로운 수정 모델을 제시했는데, Swales(2004)는 수정된 모델이 연구논문의 서론에서 서로 다른 하위장르(sub-genre)에서 이루어지는 이동마디 형태의 실현을 더 다양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1990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모델과 2004년 수정된 모델의 경우 수정 및 보완된 점이 보이나 그 구조 자체는 두 모델이 거의 일치한다.

Swales가 제시한 방식의 이와 같은 접근 모델은 학문적 목적으로 쓰이

---

1) 숫자 앞의 \*는 단계 1의 하위단계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는 논문에 있어서는 주로 그 서론에 대한 연구에 많이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서론에 자신의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서론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지식을 구성하여 전달할 것인지, 논문에 신고자 하는 주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어떤 서술방식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1.2.3. 선행 연구

이동마디 분석을 언급하기 이전에 장르분석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장르분석에 따르면 여러 글 가운데 유사 혹은 동일한 구조, 주제, 내용, 수사기법 등을 포함하는 글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르분석은 특정 장르에 기반을 두고 글의 수사기법이나 어휘 등을 그 맥락과 관련해 분석하는 것으로 쓰인다.

약 20년 동안,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연구 논문의 사회적, 역사적 구조를 연구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 연구들 중 많은 수가 연구논문의 다양한 부분의 전체적인 구조를 연구했는데, 서론, 결론, 논의, 초록 등이 연구대상이었다(Samraj, 200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몇 가지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Sheldon(2011)은 각각 제1언어와 제2언어로써의 영어 저자와 제1언어로써의 스페인어 저자의 연구 논문 서론에서 볼 수 있는 수사학적인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Swales의 CARS 모형을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 각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서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적인 유형을 분석하였다.

Kwan(2006)은 응용언어학 박사 논문에 대한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LR)의 수사학적 구조를 증명하고 이들을 Swales의 CARS 모델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R와 introduction의 관계를 제시하는 한편, CARS 모형에서 볼 수 있는 이동마디들이 각각 필수적인지 선택적인지가 증명된 바 있다.

Williams(1999)는 의학 연구 논문의 결과 부분을 분석하여 수사학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는 문장 단위로 어떻게 수사기법이 진행되는지를 각 모형을 직접 적용해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Brett(1994)는 장르분석을 이용하여 사회학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했다. 이는 의사소통적 범주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결론 부분에서의 이동마디 분석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김영규, 이은하(2008)는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연구 논문 서론의 장르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박은선(2006)이 제시한 K-CARS 모형을 한국어 교육 분야 전공 대학원생들의 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험적 연구논문의 장르적 규약 지시 여부에 따라 해당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수사기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Mauranen(1993)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수사학적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같은 장르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글을 작성하였더라도 문화적인 다양성에 의해서 이가 반영되는 글 역시 다양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 1.3.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서론 분석 및 비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 어떠한 종류의 수사기법이 나타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는 두 저자집단의 서론에서 쓰이는 각 문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문장 단위의 수사기법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사기법의 흐름이나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논문의 주된 목적인 수사기법의 비교는 물론이고, 주요 인문학 중의 하나인 경영학 관련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 대상은 총 100개의 국내외 경영학 논문이며 모든 논문은 영어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이 속해 있는 영어학 논문 집단을 관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으나, 영어학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분야에서의 학문적 글쓰기 양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경영학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순히 영어로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국적을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논문들을 저자가 소속된 교육기관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에 따라 들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학기관에 소속된 저자의 논문으로 이뤄졌고 이들은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는 특정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위치한 대학기관에 소속된 저자의 논문으로 이뤄졌다. 영어권 저자 논문 역시 영어로 작성되었다. 모든 논문의 출처는 현존하는 경영학 관련 학술지이며 총 5개의 국내 간행물과 15개의 간행물에서 제공된 학술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은 모두 온라인 서비스를 토대로 수집되었으며 원활한 분석을 위해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었다.

영어권 저자 논문은 각각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12개), Accounting Review(10개), Academy of Strategic Management Journal(8개), Management Learning (10개), Strategic Management Journal(10개), 총 5개 간행물에서 수집하였으며 논문 수는 50개이다. 한국인 논문은 각각 '대한경영학회지(6개),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4개), Seoul-Journal of Business(8개), 인적자원관리연구(3개), 유통과학연구(4개), 경영교육연구(2

개), 경영저널(1개), 경영컨설팅리뷰(1개), 벤처창업연구(2개), 생산성논집(5개),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8개), 한국생산관리학회지(1개),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2개), 경영관리연구(2개),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1개), 총 15개 간행물에서 수집하였으며 전체 논문 수는 50개이다.

표4. 영어권 저자 논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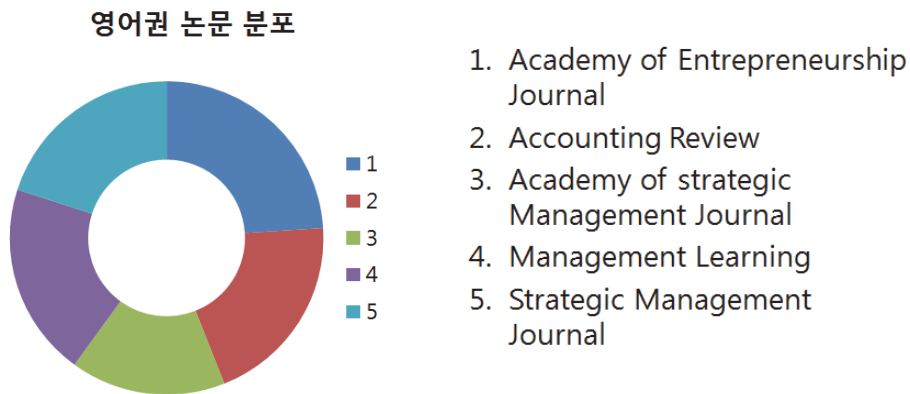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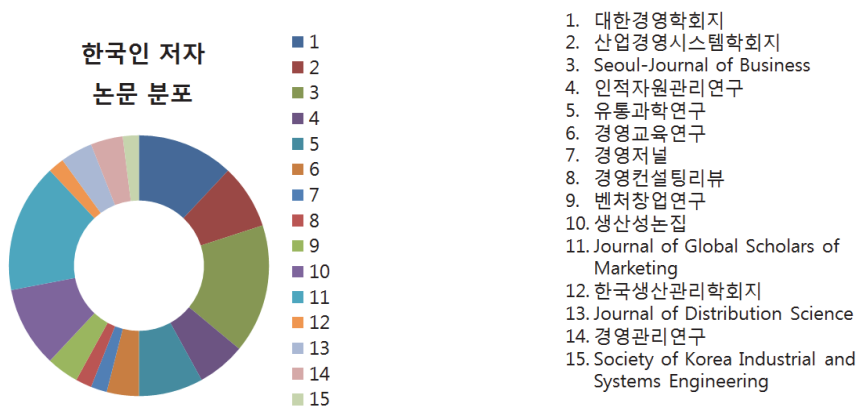


표5. 한국인 저자 논문 분포



저널의 경우 특별한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으며 특정 저널의 논문만 연구에 이용했을 경우에 생기는 해당 저널의 특성 및 경향성으로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저널을 선정하였다.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수사기법 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논문의 서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Swales의 CARS 모형이었다. 가장 상위 개념으로 CARS 모형의 이동마디 분석을 활용해 각 문장이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하였다. 이동마디의 분석은 다음 예와 같이 진행되었다.

(M3,S4)The series are then deseasonalized with the resulting seasonal indices.(M3-S4) The deseasonalized series is then modeled with an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model. (M3,S4)The second methodology uses a multiplicative seasonal ARIMA (SARIMA) model to simultaneously model trend and seasonal variations. (M3,S4)The two methodologies are compared and the advantages of each are discussed.

한편, 이동마디를 기준으로 분류된 문장을 좀 더 구체화하여 단계 및 하위단계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동마디 및 단계, 하위단계는 논문을 텍스트파일로 변환한 후 문장 앞에 기입하여 후에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자료는 전체 이동마디의 수와 각각의 이동마디 수에 대한 것, 각 이동마디와 그의 단계 및 하위단계에 관한 것이 있으며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의 수사법적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앞서 언급한 CARS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써, 이동마디가 수사기법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것을 전체로 하여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하위단계 각각의 개수 및 그 비율 역시 하나의 문장이 하

나의 단계 혹은 하위단계에 해당하며 그것이 수사기법의 갈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통계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한편, 몇 논문의 본문 구조 파악을 통해 이동마디와 단계의 적용이 실제 논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는지를 서술하였다. 그 다음 두 저자 집단을 비교하여 주된 특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학 학술논문에서 사용된 서론의 수사기법이다. 이를 위해 이동마디의 양상에 따른 논문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각 문장의 성격 및 문장 간의 연결을 관찰했다.

논문의 구조적인 면에서 이동마디 1, 2, 3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논문이 전형적인 이동마디1-이동마디2-이동마디3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았다. 이동마디의 위치나 나타나는 주기 등에 따라서 이 구조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있었으며 중간에 내포되는 이동마디도 존재했다. 여기서 내포된다는 것의 의미는 한 이동마디 내에 다른 이동마디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M1-M1-M1-M2-M1-M1- .....

(M은 move로써 이동마디를 나타냄)

다음의 구조에서 M2는 M1에 내포되어 있는 이동마디로써 내용상으로 M1의 사이에 M2 형식의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저자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다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과거의 연구를 동시에 제시할 경우 이동마디의 구조는 'M3-M3-M1-M3-M3-'의 형태가 될 수 있고, M1이 M3에 내포되는 형태가 된다. 즉, 하나의 이동마디는 수사학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이동마디에 내포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론의 길이에 따라서도 이동마디의 구조와 내포되는 정도가 달랐다. 짧은 서론을 가진 논문은 경우 이동마디의 반복이 거의 없었고, 가설이 많거나 전반적으로 길이가 긴 서론의 경우 반복이 많고 이동마디가 내포되는 경우도 잦았다.

한편, 이동마디의 구성 요소, 즉 이동마디 1, 2, 3의 사용 빈도가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영어권 저자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이동마디의 순서가 M3(771개), M1(471개), M2(146개)이고, 한국인 저자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이동마디의 순서가 M1(593개), M3(490개), M2(135개)라는 점에서 이동마디의 사용에 대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계와 하위단계를 분석할 경우에도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각각 빈번하게 쓰는 수사기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지금부터 영어권 저자 논문과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의 구조와 단계 및 하위단계의 사용을 분석하고 둘을 비교해 볼 것이다. 본문 및 이에 삽입된 표에 나타난 M1, M2, M3는 각각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S1은 단계 1을, S1\*1은 하위단계1을 나타낸다. 기타 단계 및 하위단계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였다.

### 3.1. 영어권 저자 논문

#### 3.1.1. 이동마디의 구조

표6. 영어권 저자 논문의 전체 이동마디 묶음 구조

논문 번호	이동마디 묶음 구조	이동 마디 1(M1)	이동 마디 2(M2)	이동 마디 3(M3 )	합계
1	M1-M2-M3	1	1	1	3
2	M1-M3-M2-M3	1	1	2	4
3	M3-M1-M2-M1-M2-M3	2	2	2	6
4	M1(M2)-M2-M3-M2-M3	1	2(1)	2	5(1)

5	M1(M3)-M2	1	1	0(1)	2(1)
6	M3-M1-M2-M1-M2-M1	3	2	1	6
7	M3-M1-M2-M3	1	1	2	4
8	M1(M3)-M2-M3	1	1	1(1)	3(1)
9	M1(M2)-M3(M2)	1	0(2)	1	2(2)
10	M1-M2-M3-M1-M3(M1)	2(1)	1	2	5(1)
11	M1(M2)-M3	1	0(1)	1	2(1)
12	M3(M1)-M1-M2-M1(M3)	2(1)	1	1(1)	4(2)
13	M1(M2)-M3	1	0(1)	1	2(1)
14	M1-M2-M3-M2-M3	1	2	2	5
15	M1-M2-M1-M3(M1,M2)-M1-M3	3(1)	1(1)	2	6(2)
16	M1-M3-M1-M2-M3-M1-M2-M3(M1)	3(1)	2	3	8(1)
17	M1(M2)-M3	1	0(1)	1	2(1)
18	M1(M2)-M3-M2-M3-M1-M2-M3(M2)	2	2(2)	3	7(2)
19	M1-M2-M3-M1-M2-M3-M1(M3)-M3(M2)	3	2(1)	3(1)	8(2)
20	M3(M1)-M1-M3-M2-M3	1(1)	1	3	5(1)
21	M1(M3)-M2-M1-M2(M1)-M3	2(1)	2	1(1)	5(2)
22	M1(M3)-M3-M1(M2)-M3	2	0(1)	2(1)	4(2)
23	M1-M2-M3	1	1	1	3
24	M1-M2-M1-M3	2	1	1	4
25	M1-M2-M3	1	1	1	3
26	M1(M2)-M3-M1-M3-M1-M3	3	0(1)	3	6(1)
27	M1(M3)-M2-M3	1	1	1(1)	3(1)
28	M3-M1-M2-M3	1	1	2	4
29	M3-M2-M3-M2-M1-M2-M3(M2)	1	3(1)	3	7(1)
30	M1-M2-M3	1	1	1	3
31	M1-M2-M1-M3(M1)	2(1)	1	1	4(1)
32	M3-M1-M3-M2-M3-M1-M2-M3	2	2	4	8
33	M3-M1-M2-M3	1	1	2	4

34	M1-M2-M3	1	1	1	3
35	M1-M2-M1-M3-M1-M3	3	1	2	6
36	M1-M2-M3	1	1	1	3
37	M1-M2-M1-M3(M2)-M1-M2-M3(M1)	3(1)	2(1)	2	7(2)
38	M1-M3-M2-M3	1	1	2	4
39	M1(M2)-M3	1	0(1)	1	2(1)
40	M1-M3-M1-M2(M1)-M3-M1-M3	3(1)	1	3	7(1)
41	M1-M2-M1-M2-M3	2	2	1	5
42	M1-M2-M1(M2)-M3	2	1(1)	1	4(1)
43	M1-M3-M2-M3(M1)	1(1)	1	2	4(1)
44	M1-M2-M3(M2)	1	1(1)	1	3(1)
45	M1-M2-M3	1	1	1	3
46	M1-M2-M3	1	1	1	3
47	M3(M2)-M1-M2-M3-M1-M3(M2)-M1-M3	3	1(2)	4	8(2)
48	M1(M3)-M2-M3(M1)	1(1)	1	1(1)	3(2)
49	M1-M2(M3)-M1(M2,M3)-M3	2	1(1)	1(2)	4(3)
50	M1-M2-M3-M1-M2-M3(M1)-M2-M3	2(1)	3	3	8(1)

표 1은 이동마디를 나열했을 때 볼 수 있는 이동마디 중 같은 이동마디를 묶음으로 분류해 구조도로 나타낸 것이다. 인접한 이동마디를 하나의 집합으로 분류했을 때 각각의 집합을 M1, M2, M3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문장 단위로 분석한 이동마디가 ‘이동마디 1-이동마디 1-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2- 이동마디 2(M1-M1-M1-M2-M2-M2)’의 구조일 경우 ‘이동마디 1-이동마디 2(M1-M2)’로 묶어 나타냈다. 50개 논문 각각의 이동마디 구조도를 표의 형태로 제시한 결과 논문별로 고유한 구조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 구조인 M1-M2-M3를 따르는 논문은 1번, 23번, 25번, 30번, 34번, 36번, 45번, 46번 논문이었으며 따로 내포되는 이동마디는

없었다. 그러나 동일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M1, M2, M3로 대표되는 구조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이동마디 1, 2, 3의 분포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논문 1번의 경우 이동마디 1이 7개, 이동마디 2가 2개, 이동마디 3이 6개로써 M1과 M3이 주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M2가 작은 수를 보였다. 23번의 경우 이동마디 1이 6개, 이동마디 2가 1개, 이동마디 3이 5개로 1번과 마찬가지로 M1과 M3의 비율이 높았다. 논문 30번은 이동마디 1이 5개, 이동마디 2가 1개, 이동마디 3이 6개였으며 논문 45번은 이동마디 1이 3개, 이동마디 2가 2개, 이동마디 3이 10개로 역시 M1과 M3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논문 34번의 경우 이동마디 1이 1개, 이동마디 2가 2개, 이동마디 3이 4개로 M1이 가장 작은 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M2가 많았으며 M3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한편 논문 36번은 이동마디 1이 9개, 이동마디 2가 3개, 이동마디 3이 2개로, M1이 가장 많고 M2가 M3보다 1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46번의 경우에는 이동마디 1이 4개, 이동마디 2가 1개, 이동마디 3이 1개로 이동마디 2와 이동마디 3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외의 논문들은 M1-M2-M3의 기본적인 구조가 변형되어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M1-M2-M3의 순서를 지키면서 특정 부분이 변형된 경우도 있었고, 기본 구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었다. 논문 2번의 경우 'M1-M3-M2-M3'의 구조로 'M1-M2-M3'의 순서에서 M1 뒤에 M3이 삽입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논문 7번은 'M3-M1-M2-M3'으로 M3이 맨 앞에 나타나고 그 뒤에 'M1-M2-M3'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논문 27번과 같이 'M1(M3)-M2-M3'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도 있었다. 이는 'M1-M2-M3'에서 M1에 M2가 내포되어 있는 형태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M1, M2, M3 중 일부가 반복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14번 논문의 경우 M1-M2-M3-M2-M3의 구조를 지녔는데, M2와 M3의 진행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문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중요한 사실로 인식되던 과거의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M1). 그 다음, 이러한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M2) 앞으로 진행될 연구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서술한다(M3). 다음으로 저자는 또다시 기존의 연구가 어떠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M2) 앞으로의 연구는 이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제시하며 마무리 짓는다(M3). 이와 같이 이동마디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저자가 중요시하는 내용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주제가 한 번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두고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드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마디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빈번히 발생한다. 때때로 자신의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특정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M3에서 M1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논문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이동마디의 반복을 요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한편, 전체 논문 중에서 유사한 이동마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논문들의 집합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영어권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이동마디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되었다. 1번, 23번, 25번, 30번, 34번, 36번, 45번, 46번 논문의 경우 가장 기본적 구조인 M1-M2-M3 형태를 완벽하게 띠고 있었다. 이 구조는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했는데 8번의 경우 M1(M3)-M2-M3으로써 M1-M2-M3 구조에서 이동마디 1에 이동마디 3이 내포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11번의 경우 M1(M2)-M3이었는데 이는 이동마디 1에 이동마디 2가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마디 3이 오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이들 논문은 CARS 모형이 제시한 이동마디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M3-M1-M2-M3의 형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논문이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을 먼저 제시한 다음 다시 과거의 연구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의 한

계점을 지적한 다음 다시 현재의 연구로 돌아가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식의 논문임을 파악할 수 있다. 7번, 28번, 33번이 이와 같은 형태이며 47번의 경우 M3(M2)-M1-M2-M3-M1-M3(M2)-M1-M3의 복잡한 구조를 지녔는데, 이 역시 M3-M1-M2-M3의 구조로 시작한 한편 이동마디 3에 이동마디 2가 내포되어 있는 형태다. 후반부에는 M1-M3-M1-M3의 형태로 과거의 연구와 현재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동마디 3이 포함된 문장들 사이에 이동마디 2가 내포되면서 내용적 측면에서 이동마디 2의 특성을 지닌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 논문의 경우 서론의 길이가 다른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그 구조 역시 다소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로써 M1-M2-M1-M3도 찾아볼 수 있었다. 24번, 31번, 35번이 이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고 특정 형태로 변형된 구조도 확인되었다. 15번의 경우 M1-M2-M1-M3(M1,M2)-M1-M3의 형태였는데, 기본적으로 M1-M2-M1-M3의 형태를 띠었으나 이동마디 3에 두 개의 이동마디가 내포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지녔다. 이는 이동마디 3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문장들 사이에 내용상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2의 성격을 지닌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전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번 역시 M1-M2-M1-M3(M1)의 구조로써 후반부에 나타난 이동마디 3에 이동마디 1이 내포되어 기존의 연구에 관한 언급을 통해 현재 연구의 존재 이유와 타당성을 강조했다. 35번은 M1-M2-M1-M3-M1-M3의 형태로써 기본 구조에 M1-M3을 추가해 M1-M3-M1-M3의 반복 형태를 보였다. M1-M2-M1-M3의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논문에서도 발견되었다. 49번의 경우 M1-M2(M3)-M1(M2,M3)-M3의 구조였는데 M1-M2-M1-M3을 뼈대로 특정 이동마디가 각각 다른 이동마디에 다양한 형태로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M1(M2,M3) 부분으로 보아 과거의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서술하는 동시에 그 한계점을 지적하거나 현재의 연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

는 방식을 저자가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논문에 대한 문장이 주로 분포된 부분이 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저자는 배경 지식 측면이나 연구 분야의 중요성 측면을 중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 3.1.2.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표 7.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별 개수

논문번호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	합계
1	8	1	10	19
2	3	2	16	21
3	2	3	6	11
4	6	5	9	20
5	13	2	1	16
6	8	4	9	21
7	5	2	4	11
8	5	1	8	14
9	8	2	4	14
10	33	1	24	58
11	5	1	5	11
12	21	3	5	29
13	3	6	58	67
14	3	5	41	49
15	11	3	37	51
16	9	2	30	41
17	16	1	2	19
18	16	6	28	50
19	15	5	33	53
20	5	2	59	66
21	22	7	31	60
22	25	1	18	44
23	7	1	5	13
24	15	2	11	28

25	8	2	11	21
26	11	2	4	17
27	31	1	6	38
28	10	1	7	18
29	2	6	21	29
30	5	1	6	12
31	18	6	16	40
32	10	2	14	26
33	1	1	10	12
34	1	2	4	7
35	4	1	12	17
36	9	3	7	19
37	8	3	13	24
38	1	1	12	14
39	17	4	10	31
40	12	5	9	26
41	6	2	24	32
42	6	3	19	28
43	5	4	22	31
44	3	7	19	29
45	3	2	10	15
46	4	1	1	6
47	14	4	12	30
48	6	1	11	18
49	9	4	21	34
50	3	9	16	28
합계	471	146	771	1388

표 2는 이동마디의 묶음을 풀어서 각각의 이동마디 수로 나타낸 것이다.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개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동마디 1이 471개, 이동마디 2가 146개, 이동마디 3이 771개로, 이동마디 3이 두드러지게 가장 많았고, 이동마디 2가 가장 적었다. 각 이동마디의 비율을 파악한

경우 1388개의 이동마디 중 1242개가 이동마디 1과 3인 것으로 보아 이동마디 2의 비중이 타 이동마디들과 큰 간격을 두고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개 논문의 평균 이동마디 수를 분석함과 동시에 평균 이상의 이동마디를 가진 논문을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 한 논문 당 평균적으로 27.76개의 이동마디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 22개의 논문에서 평균 이상의 이동마디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주로 서론의 길이가 긴 논문의 경우이거나 짧은 문장으로 좀 더 복잡한 수사기법을 사용한 저자의 논문으로 보인다.

50개 논문 각각을 살펴보아 이들 논문이 세 개의 이동마디를 각각 몇 개씩 갖고 있는지 찾아낸 다음 어느 이동마디가 많고 어떤 것이 적은지를 표시해 보았다. 이동마디의 수를 기준으로(이동마디 1:1, 이동마디 2:2, 이동마디 3:3으로 표시)해서 그 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제시했을 때 1-3-2의 구조를 가진 논문은 16개, 3-1-2는 22개, 1-2-3은 1개, 3-2-1은 7개였다. 한편, 특정 이동마디가 동일한 개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1과 3이 같으면서 가장 많고 2가 가장 적은 논문이 1개, 3이 가장 많고 1과 2가 같은 경우가 2개, 1이 가장 많고 2와 3이 같은 경우가 1개였다. 이동마디 3의 수가 가장 많은 논문은 총 31개였고 이동마디 1의 수가 가장 많은 논문은 18개, 1과 3이 같으면서 가장 많은 논문은 1개로 50개 모든 논문에서 이동마디 3과 이동마디 1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이동마디 2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이동마디에 비해서 작았다. 또한 이동마디 1과 3을 비교했을 경우, 이동마디의 절대적인 수나 출현 범위를 고려했을 때 이동마디 3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논문이 이동마디 3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양 쪽 모두 28개의 이동마디를 갖고 있는 논문을 비교했을 때 A 논문은 1-3-2의 순서로 이동마디 1이 15개, 이동마디 2가 2개, 이동마디 3이 11

개였으나 B 논문은 3-1-2 순으로 이동마디 1, 2, 3이 각각 6개, 3개, 19개인 경우가 있었으므로 모든 논문에 3-1-2의 순서를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위에 제시한 표에 근거해 50개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권 저자는 자신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가 정확히 무엇과 관련이 있고 그 연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그 연구 결과의 의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에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을 언급하는 것이나 과거의 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은 차선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의 연구와 현재의 연구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의 문장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3.1.3. 이동마디 1

표 8. 영어권 논문 집단 이동마디 1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	하위단계 수	논문 수
단계 1	471	50
하위단계(i)	256(54.4%)	43
하위단계(ii)	29(6.1%)	21
하위단계(iii)	51(10.8%)	25
하위단계(iv)	6(1.3%)	6
하위단계(v)	22(4.7%)	10
하위단계(vi)	43(9.1%)	20
하위단계(vii)	10(2.1%)	7
하위단계(viii)	54(11.5%)	21
합계	471(100%)	

이동마디 1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동마디 1의 구성을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이동마디 1은 1개의 단계와 그 아래에 8개의 하위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이동마디 1의 전체 개수에 대한 이동마디 1의 하위단계의 개수와 비율이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영어권 저자가 이동마디 1에 해당하는 문장을 쓸 때 세부적으로 어떤 하위단계의 특징과 부합하는 문장을 쓰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위단계 1에서 하위단계 8까지 각각의 하위단계의 개수와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위단계를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S1\*N(N은 하위단계 번호를 나타냄)으로 표시한다.

S1\*1은 총 471개의 하위단계 중 256개로 54.4%의 비율을 보였다. 50개의 논문 중에서 86%인 43개의 논문이 S1\*1을 포함하고 있었다. S1\*2는 29개로 6.1%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50개 논문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21개의 논문이 이를 포함하고 있었다. S1\*3은 51개로 10.8%를 차지했다. 전체 논문의 50%인 25개 논문이 S1\*3을 포함하고 있었다. S1\*4는 1.3%로써 6개였다. 전체 논문 중 12%인 6개 논문이 이 하위단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S1\*5는 4.7%인 22개였고, 전체 논문 중 10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20%). S1\*6은 43개로써 9.1%였고, 40%인 20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S1\*7은 2.1%로 10개였고 전체 논문에서 나타난 비율은 14%로 총 7개의 논문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S1\*8은 11.5%를 기록했으며 54개였고, 전체 논문의 42%인 21개의 논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 제시된 값을 토대로 영어권 저자의 단계 및 하위단계 사용 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어권 저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미 수행되었던 연구에 대한 내용과, 특히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1\*1의 절대적인 개수와 분포를 보고 알 수 있

다. 256번이라는 높은 빈도의 출현뿐만 아니라 50개의 논문 중 43개의 논문에서 고루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다음, 영어권 저자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에 뒤이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지식을 곁들여 사용하며, 동시에 연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기법이 모든 연구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21~25개의 논문에서 약 10%의 비율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수사기법의 경우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수사기법(기존 연구의 결과)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두 개의 하위단계를 비교해 봤을 때 영어권 저자는 말하는 내용의 영역을 줄여 글을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권위 있고 공인된 기관에서 제시한 공식적인 정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두 가지 수사기법이 각각 21개, 20개의 논문에서 사용되어 전자의 분포가 더 넓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개수가 각각 29개와 43개이므로 후자가 평균적으로 한 논문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된다. 영어권 저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수사기법은 기존 연구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거나 관련된 사항의 시대적·시간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 등이다.

#### 3.1.4. 이동마디 2

표9. 영어권 논문 집단 이동마디 2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단계)	하위단계 수	논문 수
S1A	68(46.6%)	29
S1B	48(32.9%)	30
S2	30(20.5%)	21
합계	146(100%)	

\* S1A, S1B, S2는 단계를 나타냄

먼저, 이동마디 2의 단계를 S1A, S1B, S2의 세 가지로 표시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S1 내에 S1A와 S1B가 하위단계로써 존재하고 S2는 또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어권 저자 논문의 전체 이동마디 2 수와 전체에 대한 각 단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동마디 2의 수는 총 146개였다. 그 중 S1A는 46.6%, S1B는 32.9%, S2는 20.5% 순이었다. S1A는 146개 중 68개로 전체 50개의 논문 중 29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S1B는 146개 중 48개였으며 30개의 논문에서 볼 수 있었다. S2는 30개로써 모든 논문 중 21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절대적인 개수로 봤을 때는 S1A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S1B, 마지막으로 S2였다. 출현한 논문의 분포를 기준으로 할 경우 S1A와 S1B가 논문 1개 차이로 S1B가 더 많았으나 절대적인 개수, 즉 나타난 빈도수와 출현한 논문의 수를 둘 다 고려해 보자면 영어권 저자는 S1A를 S1B에 비해 더 빈번히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이동마디 2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영어권 저자는 S1A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S2를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2의 단계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권 저자는 현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이전의 연구, 즉 이미 진행되어 성과가 있는 연구와 자신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여 자신의 논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자는 그 다음 단계로써 지금까지 어떤 정보들이 알려졌는지를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20.5%만이 연구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 3.1.5. 이동마디 3

표 10. 영어권 논문 집단 이동마디 3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단계)	하위단계 수	논문 수
S1	131(17.0%)	50
S2a	29(3.8%)	17
S3	14(1.8%)	8
S4	178(23.1%)	40
S5	226(29.3%)	32
S6	136(17.6%)	28
S7	57(7.4%)	19
합계	771(100%)	

\* S1~S7(S2a 포함)은 이동마디의 단계를 나타냄

이동마디 3은 7개의 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영어권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3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각 단계를 S1, S2a, S3, S4, S5, S6, S7로 표시했다.

S1은 131개로 전체 이동마디의 17%이며, 50개의 전체 논문 중 50개의 논문 모두에서 나타났다. S2a는 29개으로써 3.8%를 차지했고 17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S3은 가장 적은 비율인 1.8%로 14개였으며 총 8개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S4는 178개로 23.1%를 차지했으며 40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S5는 226개로 가장 개수가 많았으며 29.3%였다. 이는 32개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S6은 136개였으며 17.6%를 기록했고 28개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인 S7은 7.4%인 57개였으며 19개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논문에서 나타난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S5-S4-S6-S1-S7-S2a-S3이고, 나타난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식으로 나열하면 S1-S4-S5-S6-S7-S2a-S3 순이다. 출현한 빈도

상으로 S5가 가장 자주 나타난 것이 사실이나 각각의 논문과 이의 이동마디를 살펴 본 결과 특정 논문에 다수의 S5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논문 13번에는 S5가 26개, 21번에는 19개 등 상대적으로 많은 S5가 한 논문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13번은 S5이 전체 이동마디의 44.8%를 차지하고 21번은 61.3%를 S5가 차지하는 등 그 비율이 높았다.

이동마디 3 영역에서 영어권 저자가 서론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단계 1, 즉 S1이 모든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Swales(2004)는 2004년 CARS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동마디 3의 S1(단계 1)이 의무적으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어권 저자의 논문들의 경우에도 전체 50개 논문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S1이 발견되었다. 이는 50개 논문의 저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분명히 알리거나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논문 서론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생각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 다수의 영어권 저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있어서 그 연구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방법 및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50개 논문 중 40개 논문에서 볼 수 있었던 중요한 논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연구의 세부적인 사항을 노출함으로써 논문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 외에 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저자의 논문이 다루고 있는 연구가 앞으로 어떠한 곳에 적용될 것이며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잦다는 것이다. 이는 S6과 관련된 요소로서, 절반 이상(28개)의 논문에서 나타났다. 다른 단계와 비교했을 때 논문 대비 출현 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한 논문 내에서도 S6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 가설을 제시하는 경우나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등의 단순한 정보전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에 관련된 내용은 S2a와 관련이 있으며 개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과정은 S3과 관련이 있다.

영어권 저자의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동마디 3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저자는 자신이 그의 논문에서 어떤 대상을 다룰 것인지를 명시하고 그 연구의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연구의 결과가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논문의 근거와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의 결과를 주로 제시하며, 논문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나 용어 정리 등 형태에 입각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 3.2. 한국인 저자 논문

#### 3.2.1. 이동마디의 구조

표11. 한국인 저자 논문의 전체 이동마디 묶음 구조

논문 번호	이동마디 묶음 구조	이동마디 1(M1)	이동마디 2(M2)	이동마디 3(M3)	합계
1	M1-M2-M1-M3	2	1	1	4
2	M1-M2-M1-M3	2	1	1	4
3	M1-M3-M2-M3(M1)	1(1)	1	2	4(1)
4	M3-M2-M1-M2-M1	2	2	1	5
5	M1-M2-M1-M3	2	1	1	4
6	M1-M2-M3	1	1	1	3
7	M1-M3(M1)-M2-M3	1(1)	1	2	4(1)
8	M1-M3-M2-M1-M3	2	1	2	5
9	M1-M2-M3	1	1	1	3
10	M1-M2-M3(M1)-M1-M3-M1-M3	3(1)	1	3	7(1)
11	M1-M2-M1-M3	2	1	1	4
12	M1(M2,M3)-M2-M1(M3)-M3(M1,M2)	2(1)	1(2)	1(2)	4(5)
13	M1-M2-M1-M2-M3	2	2	1	5

14	M1-M2-M1(M2)-M3	2	1(1)	1	4(1)
15	M1-M3(M1)-M1-M2-M1-M3-M1-M2-M3	4(1)	2	3	9(1)
16	M1-M2-M3	1	1	1	3
17	M1-M3-M2-M3(M2)	1	1(1)	2	4(1)
18	M1-M2-M3(M1)	1(1)	1	1	3(1)
19	M1-M2-M3	1	1	1	3
20	M1-M2-M1-M3	2	1	1	4
21	M1-M3-M1-M2-M3(M1)	2(1)	1	2	5(1)
22	M3-M1-M3(M2)	1	(1)	2	3(1)
23	M1-M2-M1-M3	2	1	1	4
24	M1-M2-M3-M2-M1-M2-M3	2	3	2	7
25	M1-M2-M1-M3(M2)	2	1(1)	1	4(1)
26	M3-M1-M2-M1(M3)-M3	2	1	2(1)	5(1)
27	M1-M2-M1-M3(M2)	2	1(1)	1	4(1)
28	M1-M2-M3	1	1	1	3
29	M1-M2-M3(M2)	1	1(1)	1	3(1)
30	M1(M3)-M2-M3	1	1	1(1)	3(1)
31	M1-M2(M3)-M3-M1-M2-M3	2	2	2(1)	6(1)
32	M1-M2-M3-M2-M3-M1-M3(M1,M2)	2(1)	2(1)	3	7(2)
33	M1-M2(M3)-M1-M3(M2)-M1(M2)-M3-M1(M2)-M3	4	1(3)	3(1)	8(4)
34	M1(M2)-M3	1	(1)	1	2(1)
35	M1-M3-M1(M3)-M2-M1-M2-M3(M1)	3(1)	2	2(1)	7(2)
36	M1-M3-M2-M3	1	1	2	4
37	M1-M2-M1-M3	2	1	1	4
38	M1-M3-M2-M3(M1)-M1-M3	2(1)	1	3	6(1)
39	M1-M3-M1-M2-M3	2	1	2	5
40	M1(M2)-M3-M1-M3	2	(1)	2	4(1)
41	M1-M2-M3-M1-M3	2	1	2	5
42	M1-M2-M1(M2)-M3(M1)	2(1)	1(1)	1	4(2)
43	M1(M2)-M3-M1-M2-M1-M2-M3	3	2(1)	2	7(1)
44	M1-M2-M3-M1-M3	2	1	2	5

45	M1-M2-M3	1	1	1	3
46	M1-M2-M3	1	1	1	3
47	M1-M2-M3-M1-M3	2	1	2	5
48	M1-M2-M3	1	1	1	3
49	M1(M3)-M3(M1)-M2-M3	1(1)	1	2	4(1)
50	M1-M2-M3	1	1	1	3

한국인 저자 논문 역시 이동마디가 분포해 있는 양상을 파악해 인접해 있으면서 동일한 이동마디를 묶음으로 나타내 구조도를 작성한 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역시 이동마디 1, 2, 3을 각각 M1, M2, M3으로 표시했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경우, M1-M2-M3을 따름과 동시에 따로 내포되는 이동마디가 없는 논문은 6번, 9번, 16번, 19번, 28번, 45번, 46번, 48번, 50번이었다. 이들 논문 역시 영어권 저자 논문과 마찬가지로 구조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의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즉, 같은 M1-M2-M3 구조라도 각각의 수가 달라 그 수사기법의 특징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6번 논문은 M1이 2개, M2가 2개, M3이 21개로써 이동마디 3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즉, 기존 연구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포함한 현재 연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그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특정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번 논문은 M1이 11개, M2가 2개, M3이 6개였다. 즉, 이 논문에서는 주로 과거 혹은 현재 시점까지의 연구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M1의 절반 정도인 6개의 문장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를 다루어, 상대적으로 기존 연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M1-M2-M3의 구조를 가진 모든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 논문은 대체적으로 이동마디 1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저자 논문에서는 M1-M2-M1-M3과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마디가 진행되다가 같은 형식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논문 1번과 2번은 M1-M2-M1-M3의 구조로써 M1을 기준으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다. 이를 문장 측면에서 해석하면 이들 논문은 기존의 연구 상황과 논문들이 다루는 내용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논문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한 다음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때때로 이와 같은 형태는 특정 이동마디가 내포된 형태로도 발생한다. 14번 논문의 경우 M1-M2-M1(M2)-M3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 M1 문장들 사이에 기존 연구와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이동마디가 반복되는 논문의 형태 중에는 M2를 거치지 않고 M1의 뒤에 바로 M3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17번 논문의 구조인 M1-M3-M2-M3(M2)인데,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와 관련된 사항이 어떤 의의를 지니며 어느 점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한 다음, 앞으로 논문에서 다루게 될 연구가 앞에서 언급했던 연구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진행되는지 서술한다. 그 다음 문장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했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할 것이다’ 형태의 문장을 삽입하여 기존 연구와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차이점을 드러냈고, 이후 문장들은 앞으로 진행될 연구가 기여하게 될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구조도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반부의 M3에는 M2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다른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문장이다.

대부분의 논문이 M1을 시작으로 하여 앞서 진행된 연구들을 가장 먼저 제시한 다음 내용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몇몇 논문들은 앞으로 진행될 연구, 즉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22번 논문의 경우 M3-M1-M3(M2)의 구조를 지녔는데, 이 논문의 서론은 논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함과 동시에 본 논문이 다루는 연구대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

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논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된 결과물에 대한 것이며, 그 사이에 과거에 제시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M3 중간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립된 이론이 본 논문에서 다룬 연구의 내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언급하는 문장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저자 논문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갖는 논문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 중 M1-M2-M3의 기본적인 구조는 한국인 저자 논문에도 적용되었다. 이 중 29편은 M1-M2-M3(M2), 30편은 M1(M3)-M2-M3의 구조로써 세계의 이동마디가 순서대로 제시된 전형적 구조에 특정 이동마디가 내포되어 있는 형태였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내용상 여러 문장들이 혼합될 필요성이 있거나 어떤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근거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지금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저자는 중간에 이와 관련된 문장을 삽입할 것이다. 이로써 한 이동마디가 다른 이동마디에 내포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구조로써 M1-M3-M2-M3을 들 수 있다. 3번의 경우 M1-M3-M2-M3(M1)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구조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3번 논문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장과 더불어 그 수사기법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는 논문이 다루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그 분야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서론을 시작한다(M1). 그 다음 저자는 앞서 제시한 분야를 조금 더 상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어떠한지 설명한다(M3). 그리고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되었으나 이전 연구는 ~한 점에서 지금 실행하려는 연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M2). 마지막으로 저자는 막 진행될 연구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M3) 중간에 과거의 연구결과가 담긴 문장을 일부 삽입했다(내포된 M1). 이와 같은 구조는 M1과 M3 뒤에 M2이 있으므로(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그 뒤에 차이점을 언급하는 구조) 다소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으나 다시 M3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내용을 재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 3.2.2.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구성

표12.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별 개수

논문번호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	합계
1	9	1	5	15
2	18	1	10	29
3	15	1	30	46
4	10	3	2	15
5	19	5	4	28
6	2	2	21	25
7	10	2	21	33
8	15	1	7	23
9	6	1	5	12
10	9	4	8	21
11	10	2	9	21
12	16	9	44	69
13	4	3	8	15
14	9	2	8	19
15	14	4	10	28
16	6	1	1	8
17	3	2	11	16
18	11	1	4	16
19	11	2	6	19
20	7	2	5	14
21	13	2	13	28

22	2	1	21	24
23	11	2	1	14
24	9	8	3	20
25	5	2	3	10
26	10	1	18	29
27	5	3	7	15
28	10	3	6	19
29	11	4	12	27
30	26	1	2	29
31	14	4	17	35
32	16	5	12	33
33	29	11	21	61
34	9	1	6	16
35	27	2	19	48
36	2	1	4	7
37	9	5	3	17
38	13	2	11	26
39	19	3	14	36
40	28	2	3	33
41	9	2	8	19
42	11	4	6	21
43	23	5	12	40
44	5	3	19	27
45	18	1	6	25
46	20	2	4	26
47	14	2	9	25
48	2	1	1	4
49	11	2	8	21
50	8	1	2	11
합계	593	135	490	1218

표 7은 표 2와 마찬가지로의 형태로써 표 6에서 나타낸 이동마디 묶음 구조에 포함된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각각의 개수를 나타낸 표이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전체 이동마디 수를 제시함과 동시에 각 이동마디의 개수 및 비율을 나타내고 어떤 이동마디가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알아보았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는 총 1218개였다. 이 중 이동마디 1이 593개(48.7%), 이동마디 2가 135개(11.1%), 이동마디 3이 490개(40.2%)로 이동마디 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동마디 3이 많았으며, 이동마디 2가 가장 적었다. 1218개 중에 1083개, 즉 전체 중 약 89%가 이동마디 1과 3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한국인 저자 논문 역시 영어권 저자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동마디 2가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의 개수를 구조화하여 그 수가 많은 이동마디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동마디를 제시했을 때 1-3-2의 구조를 가지는 논문은 25개, 3-1-2의 구조를 가지는 것은 12개, 1-2-3의 구조를 가지는 것은 3개였다. 한편, 3이 가장 많고 1과 2가 같은 경우가 1개, 1이 가장 많고 2와 3이 같은 경우가 2개, 1과 3이 가장 많으면서 같고 2가 가장 작은 것이 1개였다. 이 중 이동마디 1이 가장 많은 경우가 35개였고, 이동마디 2가 가장 많은 경우는 없었으며 이동마디 3이 가장 많은 경우는 13개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동마디 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의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12번 논문에서는 전체 69개 이동마디 중에 무려 44개가 이동마디 3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모든 논문이 같은 규칙을 따른다고 정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한편, 이 경우는 이동마디 3이 한 논문에 집중되어 이의 수를 증가시킨 경우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한국인 저자 논문의 특징을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저자는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언급하여 앞으로 자신이 논문에서 다룰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력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

떠하며 많은 권위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바 있으며, 그러므로 앞으로 자신이 다루게 될 연구 역시 중요하다'의 형식을 빌린 논문이 많았다. 이를 통해 저자는 논문이 가지는 가치를 과거의 연구와 연관시켜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3.2.3. 이동마디 1

표13. 한국인 논문 집단 이동마디 1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	하위단계 수	논문 수
단계 1	593	50
하위단계(i)	267(45.0%)	47
하위단계(ii)	52(8.8%)	34
하위단계(iii)	60(10.1%)	25
하위단계(iv)	22(3.7%)	16
하위단계(v)	28(4.7%)	14
하위단계(vi)	27(4.6%)	20
하위단계(vii)	17(2.9%)	8
하위단계(viii)	120(20.2%)	34
합계	593(100%)	

\* 하위단계( )는 이동마디 1 내의 하위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1은 총 593개였다. 영어권 저자 논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1에도 단계 1의 하위 개념이 존재하고 그것을 하위단계라고 정의한다(예를 들어, 단계 1의 하위단계 1은 S1\*1로 표기한다). 지금부터 한국인 저자 논문에 나타난 이동마디 1의 각 하위단계의 비율과 그 하위단계가 나타난 논문의 개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S1\*1은 267개였으며 45%를 차지했다. 총 50개의 논문 중 47개의 논문에서 S1\*1이 발견됐다. 이들 논문에서 한 논문에 나타나는 S1\*1의 개수는 최

소 1개에서 최대 16개였다. 평균적으로는 한 논문에 9.9개의 S1\*1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S1\*2는 52개였고 전체의 8.8%였다. 34개의 논문에서 이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1~6개의 범위에서 발견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한 논문당 1.5개가 발견되었다. S1\*3은 60개였고 전체의 10.1%를 차지했다. 총 25개의 논문에서 이가 발견되었는데 1개에서 10개 사이로 발견되었고 평균적으로는 2.4개가 발견되었다. S1\*4는 3.7%인 22개였고 전체 중 16개 논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1.4개가 나타났다. S1\*5는 4.7%에 해당하는 28개였으며 14개의 논문에 분포되어 있었다.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1개였으며 가장 많은 경우는 6개였다. 이들의 평균값은 2개였다. S1\*6은 4.6%에 해당하는 27개였으며 20개의 논문에서 발견되었다. 가장 적게 발견된 경우가 1개, 가장 많이 발견된 경우가 3개였고, 그 평균값은 1.4개였다. S1\*7은 17개가 발견됐으며 그 비율은 2.9%였다. 총 8개의 논문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까지가 발견됐고 이의 평균값은 2개였다. S1\*8은 120개였으며 20.2%를 차지했다. 34개의 논문에서 이가 발견되었는데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가 발견됐고 평균적으로는 한 논문에 3.5개가 포함됐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1과 관련된 특징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인 저자는 과거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서론을 쓸 때 그 연구의 결과적인 측면을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 저자 논문의 서론에 쓰인 수사기법 중 과거의 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의 45%가 이러한 결과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그 분포도 50개의 논문 중에 47개인 것으로 보아 94%의 저자들이 이러한 수사기법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 저자는 과거 시점의 연구 결과 이외에, 그 연구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며, 그 연구의 의의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언

급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장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인 저자는 이야기의 범주를 좁히는 기법을 틈틈이 사용했다. 한편, 서술적으로 제시되는 내용 이외에 특정 용어에 대한 정리나 연구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모든 논문이 같은 하위단계의 순위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논문 8번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장 많았던 S1\*1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었다. 대신 S1\*5가 전체 이동마디 1의 개수인 15개 중 6개로 가장 많았다. 즉, 이 논문의 저자는 과거 연구의 ‘결과’ 보다는 ‘과정’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서론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번 논문의 경우, S1\*8이 전체 이동마디 1의 수인 8개 중 5개로 가장 많았다. 50번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S1\*1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사실을 S1\*8에 해당하는 문장이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S1\*8의 문장은 이 연구 결과가 실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서술한다.

#### 3.2.4. 이동마디 2

표14. 한국인 저자 논문 집단 이동마디 2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단계)	하위단계 수	논문 수
S1A	67(49.6%)	32
S1B	33(24.5%)	22
S2	35(25.9%)	25
합계	135(100%)	

\* S1A, S1B, S2는 단계를 나타냄

한국인 저자 논문에서 발견된 이동마디 2의 전체 수와 각 단계의 개수 및 비율, 각각의 단계가 나타난 논문의 수를 나타내 보았다. 한국인 저자 논문

에서 발견된 이동마디 2는 총 135개였다. 이 중 S1A는 67개였으며 49.6%였다. 50개 논문 중 32개 논문에서 발견돼 모든 이동마디 2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S1B는 24.5%인 33개로 22개의 논문에서 볼 수 있었다. S2는 35개로 25.9%였고 25개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S1B와 S2를 비교할 경우 하위단계 수 면에서나 논문 수 면에서나 큰 차이는 없으나 S2가 상대적으로 넓은 논문 범위에서 잦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S1A의 경우는 각 논문에 걸쳐 분포된 범위가 가장 높은 것과 더불어, 몇몇 논문에서 5개 이상의 S1A가 발견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기록한 듯 보인다.

한국인 저자가 이동마디 2를 쓸 때에 선호하는 단계의 수와 비율, 각 논문에 나타난 출현 양상 등을 파악해 보면 이들 논문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인 저자는 이동마디 2의 문장을 쓸 때에 기존에 있어 왔던 연구와 앞으로 하게 될 연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편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자신이 주도하는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논문의 중요성 또한 동시에 강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S1A, S1B, S2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즉 기존의 연구와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동마디 2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논문에 반영되어 있다.

### 3.2.5. 이동마디 3

표15. 한국인 저자 논문 집단 이동마디 3의 하위단계 및 분포

구조(단계)	하위단계 수	논문 수
S1	109(22.2%)	50
S2a	22(4.5%)	9
S3	11(2.2%)	9
S4	88(18.0%)	22

S5	151(30.8%)	30
S6	48(9.8%)	16
S7	61(12.5%)	18
합계	490(100%)	

\* S1~S7(S2a 포함)은 이동마디의 단계를 나타냄

한국인 저자 논문의 이동마디 3은 총 490개였다. 전체 이동마디 3의 수를 기준으로 7개의 단계가 어떤 비율로 얼마나 넓은 분포에 걸쳐 출현하는지 알아보았다. S1은 109개로 22.2%였으며, 50개의 논문 중 50개 모두에서 발견됐다. 평균적으로 한 논문에 2.2개의 S1이 포함돼 있었다. S2a는 총 22개로 4.5%를 차지했으며 9개의 논문에서 발견됐고, 한 논문에 약 2.5개의 S2a가 포함돼 있었다. S3은 11개로 9개의 논문에서 발견됐으며 그 비율은 2.2%였다. 평균적으로 한 논문에 1.2개의 S3이 나타났다. S4는 88개로 18%였으며 22개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한 논문에 4개의 S4가 포함돼 있었다. S5는 151개로 30.8%를 차지했으며 30개의 논문에서 발견됐다. 평균적으로 한 논문 당 5개의 S5가 포함되어 있었다. S6은 9.8%인 48개였으며 16개의 논문에서 발견됐다. 한 논문 당 3개의 S6을 볼 수 있었다. S7은 61개로 12.5%였으며 18개의 논문이 이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 논문에서 평균적으로 발견된 S7의 수는 3.4개였다.

여기서 각 단계의 수를 계산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리고 많은 논문에서 나타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논문에서 나타난 개수를 기준으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S5-S1-S4-S7-S6-S2a-S3이었고, 나타난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는 S1-S5-S4-S7-S6-S2a=S3 순이었다. S5의 경우 30개의 논문에 분포되어 있는 한편 S1에 비해 개수가 많으나 특정 논문에 이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따라서 저자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동마디는 S5보다는 S1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5 또한 이를 선택한 저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특정 저자의 논문에 사용된 이동마디 중 S5의 개수가 다

른 단계에 비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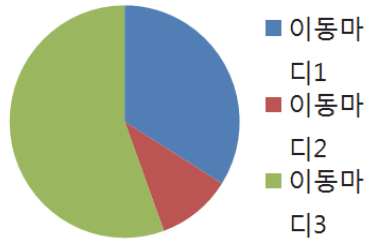
한국인 저자 논문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각 논문들이 포함하는 이동마디 3의 분포가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번 논문은 S1, S3, S6에 해당하는 이동마디만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전체 이동마디가 3개의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33번 논문의 경우 단계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S1 1개, S2a 3개, S4 5개, S5 8개, S6 1개, S7 3개로 S3을 제외한 모든 단계가 나타났다. 한편, 단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각 논문은 많은 격차를 보였다. S2a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논문 2, 7, 25, 26, 29, 33, 35, 38, 44번에만 S2a가 존재했다. 나머지 논문에서는 S2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 S2a 개수인 22개는 오직 9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S1의 경우에는 50개 모두의 논문에서 발견되어 넓은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해 모든 논문이 동일한 단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그 분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저자 논문 역시 S1이 50개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점은 영어권 논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동마디 3의 단계 1, 즉 S1은 필수적, 의무적인 단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3.3.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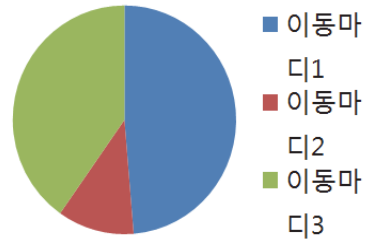
표16.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논문에서 나타난 이동마디의 비율

이동마디	영어권 저자 논문(%)	한국인 저자 논문(%)	합계
이동마디 1	471(34%)	593(49%)	1064(41%)
이동마디 2	146(10%)	135(11%)	281(11%)
이동마디 3	771(56%)	490(40%)	1261(48%)
합계	1388(100%)	1218(100%)	2606(100%)

영어권 저자 논문



한국인 저자 논문



영어권 저자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가 1388개, 한국인 저자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가 1218개였다. 이동마디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동마디를 하나의 문장과 연결시켜 분석했으므로 이동마디의 수가 문장의 수와 동일하다고 간주했을 때, 영어권 저자 논문이 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논문을 포함하거나 복잡한 이동마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 논문의 구조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논문 모두 구조면에 있어서 M1, M2, M3이 한 논문도 빠지지 않고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논문이 M1-M2-M3의 정형화된 구조를 따르지는 않았다. 이는 글의 흐름상 여러 가지 관점을 띠는 문장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의 결과가 ~한데 ~한 한계점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라는 또 다른 연구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장들의 경우 M1과 M2가 하나의 묶음으로써 작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M2가 M1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논문의 구조는 기본적인 틀인 세 개의 이동마디와 그것에 내포된 이동마디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M1-M2-M3-M2-M3과 같이 이동마디가 일정한 틀 내에서 순환되는 경우도 잦았다. 이는 저자가 서론에서 특정 주제를 제시할 때 반드시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문장들, 즉

세 가지의 이동마디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어권 저자 논문과 한국인 저자 논문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전체 이동마디의 수가 같아도 이를 3개의 이동마디로 분리했을 때 한 이동마디에 해당하는 문장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이동마디가 14개인 두 논문이 있을 때 한 논문은 이동마디 1, 이동마디 2, 이동마디 3 순서로 5개, 1개, 8개이고 다른 논문은 8개, 2개, 4개일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살펴본 것이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이동마디 구성 비율이다.

영어권 저자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 1이 471개(34%), 이동마디 2가 146개(10%), 이동마디 3이 771(56%)개로 총 1388개였다. 한편, 한국인 저자 논문의 경우 이동마디 1이 593개(49%), 이동마디 2가 135개(11%), 이동마디 3이 490개(40%)로 총 1218개였다. 이와 같이 전체 이동마디의 비율만을 고려한 결과 영어권 저자 논문의 문장들은 많은 순서대로 했을 때 M3-M1-M2 순이었고, 한국인 저자 논문은 M1-M3-M2 순이었다. 공통적으로 이동마디 2에 해당하는 문장이 가장 적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서, 양 집단 논문 모두 이동마디 2, 즉 이동마디 1과 이동마디 3을 연결하며 기존의 연구에 대비해 앞으로 진행될 연구가 가지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형식의 문장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논문에서 이동마디 2가 적어도 1개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형식의 문장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동마디 1과 3의 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서론의 대부분이 기존의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언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동마디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논문 집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제시했듯이, 영어권 저자의 경

우 이동마디 3이 가장 많았고 한국인 저자의 경우 이동마디 1이 가장 많았다. 즉, 전반적으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선호하는 문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어권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루기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인 저자는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연구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서술하고 그 연구에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연구가 그 분야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당성을 제기하는 편이다.

이처럼 양 저자의 논문에는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더불어 같은 이동마디라도 저자에 따라서 다른 단계 및 하위단계에 해당하는 문장을 쓸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함께 살펴보았다.

**표17. 이동마디 1의 단계 구성**

구조	영어권	한국인	합계
단계1	471(100%)	593(100%)	1064
하위단계(i)	256(54.4%)	267(45.0%)	523(49.7%)
하위단계(ii)	29(6.1%)	52(8.8%)	81(7.5%)
하위단계(iii)	51(10.8%)	60(10.1%)	111(10.5%)
하위단계(iv)	6(1.3%)	22(3.7%)	28(2.5%)
하위단계(v)	22(4.7%)	28(4.7%)	50(4.7%)
하위단계(vi)	43(9.1%)	27(4.6%)	70(6.8%)
하위단계(vii)	10(2.1%)	17(2.9%)	27(2.5%)
하위단계(viii)	54(11.5%)	120(20.2%)	174(15.8%)
합계	471(100%)	593(100%)	1064

이동마디 1의 경우 영어권 저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하위단계는 S1\*1 이었고(256개, 54.4%) 한국인 저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하위단계 역시

267개, 45%인 S1\*1이었다. 즉, 이동마디 1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다를지 모르나 일단 이동마디 1의 문장을 쓰게 될 경우 두 집단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계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집단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과거의 연구를 언급할 경우 그 연구의 결과적 측면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18. 이동마디 2의 단계 구성**

구조	영어권	한국인	합계
S1A	68(46.6%)	67(49.6%)	135(48.1%)
S1B	48(32.9%)	33(24.5%)	81(28.7%)
S2	30(20.5%)	35(25.9%)	65(23.2%)
합계	146(100%)	135(100%)	281(100%)

이동마디 2의 경우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S1A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 역시 이동마디 2를 사용함에 있어서 두 논문 집단의 저자가 서로 다른 비율로 이를 사용하였으나 일단 이를 적용할 경우 선택하는 단계는 동일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단계까지 살펴봤을 때 영어권 저자는 S1A-S1B-S2 순으로 단계를 적용하였으나 한국인 저자는 S1A-S2-S1B 순으로 단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S1A를 제외한 다른 단계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9. 이동마디 3의 단계 구성**

구조	영어권	한국인	합계
S1	131(17.0%)	109(22.2%)	240(19.6%)
S2a	29(3.8%)	22(4.5%)	51(4.1%)
S3	14(1.8%)	11(2.2%)	25(2.0%)

S4	178(23.1%)	88(18.0%)	266(20.6%)
S5	226(29.3%)	151(30.8%)	377(30.0%)
S6	136(17.6%)	48(9.8%)	184(13.7%)
S7	57(7.4%)	61(12.5%)	118(10.0%)
합계	771(100%)	490(100%)	1261(100%)

이동마디 3의 경우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S5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S5 이외의 단계를 대상으로 하여 많이 출현하는 단계 순으로 나열할 경우에는 영어권 저자의 경우와 한국인 저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자세한 빈도수는 표 19를 참고할 수 있다.

## IV. 결 론

본 논문은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각각 영어로 작성한 경영학 논문을 Swales의 CARS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두 집단에 포함된 논문 서론의 수사학적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권 저자가 영어로 작성한 경영학 논문 50개, 한국인 저자가 영어로 작성한 경영학 논문 50개를 수집하였으며, Swales의 CARS 모형에 바탕을 두어 분석대상이 된 논문들의 서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및 전체의 수사학적 특성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논문이 Swales의 CARS 모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M1-M2-M3의 형식을 빌린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서론의 길이가 길거나 수사기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논문의 경우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서론을 가진 논문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동마디의 구조적인 틀이 등장하거나 반복되어 나타났고 특정 이동마디가 타 이동마디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두 집단의 논문 모두 M1, M2, M3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영어권 저자 논문과 한국인 저자 논문 모두에서 세 가지의 이동마디가 필수적인 요소임이 드러났다. 전체 이동마디의 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논문을 비교하면 영어권 저자 논문이 더 많은 이동마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보아 영어권 저자 논문 측에 서론이 상대적으로 긴 논문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이동마디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영어권 저자의 논문의 이동마디 구조가 더 복잡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전체 이동마디의 비율을 고려하여 숫자가 많은 이동마디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영어권 저자 논문과 한국인 저자 논문 각각 이의 순서가 다

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마디 2에 해당하는 문장의 수가 가장 적었다는 점은 양쪽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수는 적은 편이었으나 이동마디 2 역시 모든 논문에서 하나 이상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세 이동마디 모두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명제가 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논문이 아닌 평균적인 관점을 우선시켰을 때,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선호하는 이동마디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영어권 저자는 현재 자신이 진행할 연구와 그를 다룰 논문에 대한 언급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한편, 한국인 저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사실적 내용의 제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또한 발견되었다. 즉 영어권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의 제시에 충실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한국인 저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해당 연구를 서술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국적 외의 제3요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이동마디 내에 존재하는 단계의 구분을 살펴본 결과 한 이동마디 내에서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단계는 이동마디 1에서 하위단계 1, 이동마디 2에서 단계 1, 이동마디 3에서 단계 5로써 같았다. 다시 말해서, 양쪽 저자들이 선호하는 이동마디가 다르더라도 일단 특정 이동마디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 저자들이 빈번하게 제시하는 단계 또는 하위단계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동마디 1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계와 이동마디 3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계가 각각 연구의 결과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양쪽 저자 모두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과정이나 내재된 의미를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는지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장 많이 쓰인 단계 및 하위단계 외 나머지 것들은 많이 쓰인 순서별

로 나열했을 때 그 순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모든 수사학적 요소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앞서 제시했듯이 특정 이동마디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인 단계 및 하위단계만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 모두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수사기법이 존재함은 사실이나, 같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였더라도 양 집단의 논문이 가지는 경향성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자가 빈번하게 제시하는 수사학적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어권 저자가 상대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선호하고 한국인 저자가 사실에 입각한 서론 작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볼 때, 영어 쓰기에서도 어느 정도 문화적 차이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차후 영어 글쓰기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이를테면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나 본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서의 태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의 수사기법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수사학의 주된 목적인 ‘설득’의 주체적인 실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한국인 저자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여 영어권 국가에 이를 제시할 때 수사학적 측면에서 어떤 이유로든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인 저자는 영어권 국가의 저자를 설득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수사학의 재현 방식에 따라 그 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논문과 같은 학문적 글쓰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권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쓰기 방식을 숙지하고 이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글을 쓰는 방식, 즉 수사기법은 영어권의 독자를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

하되 글의 내용에 주체적이고 고유한 요소가 들어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학문적 글쓰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교사 개인이 필요에 의해 제작하는 글쓰기 관련 학습 자료를 준비할 때 적절히 내용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논문을 통해 영어권의 수사학적 특징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글을 진행하는 순서나 요령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 자체를 교사가 습득하게 된다면 학생 지도에 있어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영어권의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기존에 영어권이 선호하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쓴 글은 상황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글의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본 논문을 참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 영어로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한국 학생이 있다면 이 논문의 자료들과 논문의 결과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은 영어권 저자와 한국인 저자가 영어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어휘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글쓰기 방식의 측면에서 이를 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자 한다면 어휘와 관련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영규, 이은하(2008).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연구 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제36권 36호, pp.43-67
- 박은선. (2006).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Biber, Douglas, U. Connor, and Thomas A. Upton. (2007). *Discourse on the move: using corpus analysis to describe discourse structure*. Amsterdam, P.A.: John Benjamins Pub. Co.
- Hughes, Richard E., and Duhamel, P. Albert. (1962). *Rhetoric principles and us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yland, K. (2003). Genre-based pedagogies: A social response to proces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2(1), 17-29.
- Kwan, Becky S.C. (2006). The schematic structure of literature reviews in doctoral theses of applied linguistic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25(1), 30-55.
- Samraj, B. (2002). A discourse analysis of master's theses across disciplines with a focus on introduction.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7(1), 55-67.
- Sheldon, E. (2011). Rhetorical differences in RA introductions written by English L1 and L2 and Castilian Spanish L1 Writer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10(4), 238-251.
- Swales, John M. (1990). *Genre analysis :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les, John M. (2004). *Research genres: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mothy A. Bochers. *Rhetorical Theory: An Introduction*. Belmont, Ca: Thomson/Wadsworth
- van Rees, M.A. (2007). Discourse analysis and argumentation theory: The case of television talk. *Journal of Pragmatics*, 39(8), 1454-1463.
- Williams Ian A. (1999). Results sections of medical research articles: Analysis of rhetorical categories for pedagogical purpos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4), 347-366.

# ABSTRACT

## **Rhetorical differences in RA introductions written by English-speaking writers and Korean Writers**

Heo, Mihye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pplication of rhetoric in research article introductions written by two different groups of writers. Two groups consist of English-speaking writers and Korean writers that wrot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articles in English. As a theory structure, Swales' CARS model was applied. To do a research, a hundred RA was collected. The data includes the number of entire moves and sub-step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t every RA introduction follows basic pattern of M1-M2-M3 suggested by Swales. Each RA has different move structure to meet the purpose of themselves. Second, Both groups of RA introductions have their own move patterns that frequently appeared. Lastly, the preferences of moves were also different. Both groups of writers use various move structures. To conclude, Both English-speaking writers and Korean writers adopt different rhetoric.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L2 English writing class. This study will be a guide to teach EFL writing. It will also help the teachers to organize the entire writing class or to select appropriate teaching method.